

#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276
----------	-----

제출년월일 : 2001. 6.

제출자 : 김원석의원의 인

## 1.주 문

최근 정부는 2011년까지 12곳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달천댐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중에 있는바 충주댐 건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달천댐이 추가로 건설될 경우 지역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되니 댐건설 백지화를 건의함

※건의문(안) : 따로붙임

## 2.제안이유

가. 우리지역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안개일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수확감소, 시민생활 피해, 지역발전 저해등 피해의식이 한계점에 와 있음

나. 달천댐이 추가 건설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우려되고 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임

## 3.참고사항

가. 댐건설 장기계획 보도자료(건설교통부) 1부.

## 달천댐건설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장님 !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

21C에 맞는 물수급의 새로운 틀로 국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 계획(안)에 따라 2011년까지 12곳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중에 우리 지역의 달천이 유력시된다는 보도에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금년의 극심한 가뭄에도 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공급대상 지역 및 댐하류의 영농지역은 가뭄피해가 적은 반면, 댐이 없는 지역은 하천수위가 급감하거나 건천화된 것으로 밝혀져서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댐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8억톤의 물부족 사태가 발생하므로 댐건설에 의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수자원 확보의 유일한 대안으로 댐건설 정책을 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무한정 공급만을 늘려가는 공급중심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에서도 69.9%가 댐건설을 통한 수자원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나타났고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건설된 댐을 철거하고 복개천을 다시 복구하는등 이에 대한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이 유독 댐건설에 집착하는 발상은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몰지각과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지역만 하더라도 지난 1985년도에 건설된 충주댐과 조정지댐으로 인하여 댐건설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누대에 걸친 생활터전의 수몰, 재산권 행사의 제한, 기상 변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등 수많은 피해를 입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1999년에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달천댐 건설계획이 분명히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댐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달천댐

건설이 강행된다면 국민의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만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정부의 기만행위에 더 이상 속지않고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충정에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댐 건설이라는 명분아래 사라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천댐 건설은 백지화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달천댐 건설 백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충주.괴산지역의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총의와 참여속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명백히 하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충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